



cpbc 라디오 FM105.3MHz | 스마트폰 어플 'cpbc 빵'

한낮의 가요선물 이동우 김다혜입니다

· 월~금요일 낮 12시15분~2시



개그맨 이동우와 방송인 김다혜의 환상 호흡으로 청취자와 함께하는 시간! 유쾌한 웃음과 친근한 음악들이 어우러져서 한낮의 나른함을 깨워줍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잡학 지식, 문제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는 '퀴즈! 풀고 삼시다', 주제가 있는 문자 릴레이 '맛있는 빵쇼', 만나고 싶었던 다양한 인물초대석 '선물 같은 만남' 등 풍성한 시간 귀 기울여주세요!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부부토론

· 수요일 오전 7시~8시



진짜 부부가 아니라, 여야 싱크탱크 부원장들이 출연합니다. 정치권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과 주장을 날 것 그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후끈한 토론의 열기로 청취자들의 귀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민주연구원 김현성 부원장, 여의도연구원 이동호 부원장의 입담을 통해 세상을 통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cpbc TV

전영준 신부의 톡톡 가톨릭 영성

· 시청 시간: 월요일 오전 8시, 화요일 오후 1시,
수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1시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 때문일까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때문일까요?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향해 걸어갈 전영준 신부와 함께하는 영적 산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빵 우리들 이야기

· 시청 시간: 수요일 오전 9시, 목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10시, 일요일 오후 8시



교회 공동체의 영성과 활동을 '음식'이라는 매개체로 살펴봅니다! 공동체가 즐겨 만드는 '떡거리'를 함께 요리하면서 고유한 믿음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음식 나눔과 사랑 실천의 현장에 동행하는 온기 넘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톨릭평화신문

연재 코너 이광호 소장의 식별력과 책임의 성교육

이광호 소장의 식별력과 책임의 성교육



가톨릭평화신문은 지난 대림 1주일부터 사랑과 책임 연구소

‘이광호(베네딕토) 소장의 식별력과 책임의 성교육’ 연재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광호 소장의 식별력과 책임의 성교육’ 연재는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내는 성(性)과 생명 문제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가톨릭 교회 가르침을 바탕으로 분별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길잡이가 돼 주고 있습니다.